

도시근로자 교육비 지출 사상최대

가구당 월평균 34만원 소비지출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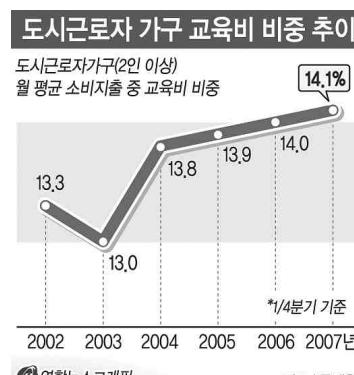
소득 상하 10% 사교육비 격차도 7배

도시근로자 가구의 전체 소비지출 중 교육비의 비중이 교육물과 상승 등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 월평균이 가구의 교육비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2인 이상)의 월 평균 소비지출 244만6천원 가운데 교육비는 34만5천원으로 14.1%를 차지했다.

이는 도시근로자 가구의 교육비 비중 통계가 작성된 1974년 1·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1970년대 이전의 교육비 지출 비중이 10% 미만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사상 최고 수준이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교육비 비중은 1.4분기 기준으로 2002년 13.3%에서 2003년 13.0%로 감소한 뒤 2004년 13.8%, 2005년 13.9%, 2006년 14.



인해 교육비 지출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올해 1.4분기 월 평균 전체 소비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4% 늘어났지만 교육비는 6.1% 증가했고 올해 1.4분기 교육물과 상승률은 5.8%에 달해 분기 기준으로 2004년 1.4분기의 6.0%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상위 10%(10분위)와 하위 10%(1분위)의 보충교육비 지출은 각각 33만2천원과 4만8천원으로 6.9배 차이가 발생, 지난해 1.4분기의 6.6배보다 격차가 더 확대됐다. /연합뉴스

“광주교도소, 5·18 역사교육장 활용을”

진선기 광주시의원 주장

광주교도소 부지를 청소년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진선기 광주시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 북구 문흥동 현 광주교도소 부지는 1980년 5·18 당시 계엄군과 시민군 간에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던 역사적 현장”이라며 “2012년 광주교도소가 광주시 북구 삼각동으로 이전하는 만큼 현 부지에 속박

시설과 수련공간, 녹지공원, 인권 학습 현장 등을 갖춘 청소년 역사관을 건립하자”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또 “청소년 역사관이 건립되면 청소년들에게 광주의 민족역사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5·18 관련 단체 관계자와 시민단체 관계자, 시민 등이 참여하는 ‘광주교도소 부지 청소년 역사관 건립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공청회 등 시민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 교육경쟁력 42위→29위

우리나라의 교육경쟁력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높아져 세계 29위로 기록됐다.

스위스 국제경쟁개발연구원(IMD)이 10일 발표한 세계 각국 국제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교육 경쟁력 부문에서 한국은 전제 55개국 중 29위를 차지해 지난해 (42위)보다 13계단 뛰어올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육 관련 공공지출 비율, 초등학교 및 중·고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중등학교 취학률, 25~34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 학업성취도 국제비교(PISA) 성적, 15세 이상 문맹률 등 7가지 통계지표와 교육제도 및 대학교육의 경쟁사회의 요구 부합 여부, 시민의 경제지식 수준 등 7가지 설문지표를 토대로 점수가 산출된다. 우리나라의 교육경쟁력 순위는 2004년 44위, 2005년 40위, 2006년 42위 등으로 하락권을 맴돌았다. /연합뉴스

‘전두환나무’ 죽일까 살릴까

1987년 광주시청에 기념식수한 동백나무

5월단체 회원들 구멍 뚫고 제초제 주입

광주시청 기념식수 동산에 있는 일명 ‘전두환 나무’(동백나무)가 말라죽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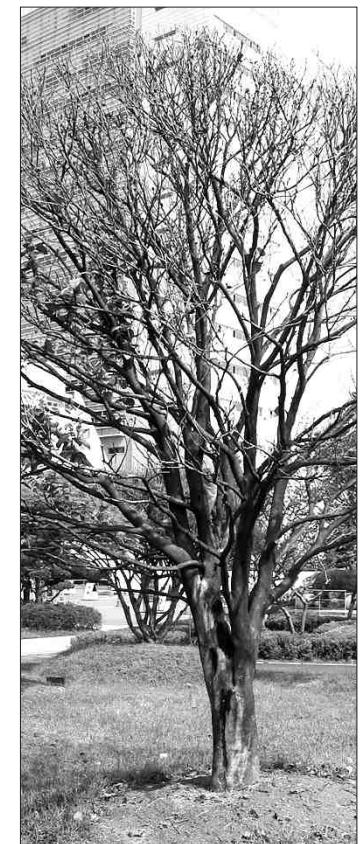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일기말인 지난 1987년 2월4일 광주시청을 방문해 심었던 높이 3.5m 짜리 나무다.

이 나무는 17년 동안 옛 게임동 청사에 있다가 2004년 시청 청사가 치령동으로 이동해 분동으로 이식됐다.

시는 이석 당시 5·18 단체 등의 거센 반발과 시민들의 정서를 감안, ‘전두환 대통령 기념식수’라는 표지석을 없애고 다른 20여 그루의 나무와 섞어 심었다.

그러나 이 나무는 이전 3년째인 올해 초부터 사철 푸른 이파리들이 하나둘 떨어지더니 이제는 아예 말라죽기 직전이다.

이는 경남 합천에서 전두환 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시를 방문, 기념식수한 동백나무가 5·18 회원들이 구멍을 뚫거나 제초제를 넣어 말라 죽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中南美서도 여수엑스포 유치 활동

산자부·상의·여수시 공동 15일부터 멕시코 등 방문

여수시가 동유럽에 이어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에 나선다.

여수시는 산업자원부와 외교통신부, 대한상공회의소 주요 인사들과 함께 중남미 경제협력단을 구성,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세계박람회사무국(BIE) 회원국인 트리니다드 토

바고와 벨리즈, 멕시코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여수시는 이번 중남미 방문을 통해 중남미 지역 경협위 협동회와 투자 박람회 등 교역 활동에 참가하며 방

문국 정·체계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하고 다시 살아난다면 시민들의 여론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증기자 chae@kwangju.co.kr

유재신 시의원 별금형…의원직 유지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0일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유재신(47) 광주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5월 9일 광주시 광산구 비아동의 한 식당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명함을 풀리며 자신의 정견을 발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다. 유 의원은 당선 무효 기준인 100만원 이하 벌금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한다.

/최권일기자 cki@

온·오프만평

- 김종우



방한중인 해운 대주주인 마그누스 노르웨이 왕세자와 메테마리 왕세자비 일행이 10일 오후 부산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린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 제막식에 참석, 묵념하고 있다.

“제조업 1,000원어치 팔아 55원 남겼다”

산銀, 3천500개社 재무분석

지난해 국내 제조업체들은 물건 1천원어치를 팔아 겨우 55원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이 국내 141개 업종, 3천 561개 업체를 조사해 10일 발표한 ‘2006년 기업 재무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의 매출액은 영업이익률은 5.5%로 전년 6.2%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5.5%로 전년 6.2%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산은은 “원화강세와 고유가, 원자재 가격인상 등으로 매출원가 비중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매출액은 수출증대에 힘입어 전년 대비 8.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설비 투자와 관련성이 높은 유형자산 증가율은 7.5%로 0.6%포인트 하락했다.

산은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재무 건전성 확보에 치중한 보수적 경영과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설비투자 부진으로 수익성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日報 광고접수안내

분실

골프회원권
No.E38-12-0083, 0083-01
아시아나 C.C.
대장운수주식회사

상기 회원권을 분실공고합니다.

• 월평균 우리은행 47회 60m 대로변

• 병원 인테리어 시설장비 완비

• 과목 생활의 일부인가? 가정부 회복

• 임대조건: 상당후 결정

(062)220-0524

• 직통: (062)227-9600

• FAX: 227-9500

주식분할로 인한 주권제출공고

당 회사는 2007년 5월 1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1주의 금액 금10,000원의 주식 1주를 분할하여 1주의 금액 금1,000원의 주식 10주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구주권을 가진 주주님과 질권자께서는 이 공고의 주제 일로부터 1개월내에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5월 1일

주식회사 창조뱅크

순천시 연향동 1433-1

대표이사 조 창 봉

산행안내

5월 12일(토)

▲ 무등도오산리회 험전

황제산(봉황산) 5월 12일(일)

07시 30분 출발

http://cafe.

daum.net/mu dung/02

T. 010-610-8000

• 팔상신의회(국립현대미술관)

• 남부신의회(국립현대미술관)

• 대신신의회(국립현대미술관)

• 대신신의회(국립현